

#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요인은 독립성 유지”

지난 1996년 첫발을 댄 부산국제영화제는 내년이면 20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은 국제영화제를 이끌고 있는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지난 8일 부산 영화의 전당 앞 센텀 호텔에서 만났다. “매번 힘들었고, 매번 보람 있었다”는 이 집행위원장의 말처럼 부산영화제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는 스무살 광주비엔날레와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인 광주국제영화제 등을 포함한 문화 축제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았다.

“1995년 본격적인 준비를 하면서 30대 영화인들과 당시 50대 후반의 김동호위원장이 함께 했다. 6명이 코파우더로 참여했고 현재는 나를 포함 4명이 일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건이 누가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단한 행운이었던 셈이다. 다들 영화적 감각이 심했다. 할리우드 영화 아니면 볼 수 없는 영화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첫째 1~2만 명 정도를 생각했는데 18만 5000명이 몰려들었다. 건드리면 폭발할 상황이었던 셈이다. 또 하나 바다는 끼고 있는 부산의 지형적인 이점도 있었다. 당시 국내 영화제를 준비한 팀이 6개 정도였다. 광주비엔날레가 책선 중 하나로 구상해 나와 임권택 감독 등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비엔날레 자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이었다. 또 서울의 경우는 사공이 너무 많았다.”

행사가 성공하면 오래 따르는 게 ‘자리’를 둘러싼 잡음이다. 한데, 부산영화제의 경우 그게 없다. 이 위원장 역시 자신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 ‘연장자’이기 때문이라고 겸손해했다.

“어려울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언제나 초심으로’였다. 처음 영화제를 만들었을 때 꾸었던 ‘꿈’을 잊지 않았다. 우리와 함께 꾸꾸었던 김동호의 유산은 두 가지다. 초심과 정열. 항상 반성하고 겸손한 자세와 사욕을 쫓지 않는 정열. 이런 영화제가 존속하는 한 계속 지켜야 할 덕목이다.”

영화인들의 꿈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건 부산시였다. 첫째 1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간섭은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올해 다큐 ‘다이빙 벨’ 상영 논란은 ‘사건’이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은 세계 영화제가 부러워하는 부분이다. 초창기 문정수 시장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확히 지켰다. 독립적인 면에서는 세계에서 보기 힘든 경우다. 이번 ‘다이빙 벨’과 관련, 부산 시장 입장에서는 사회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상영 불가’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고 본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다. 영화제 독립성을 위해 선택을 해야 했다. 영화를 틀지 않을 경우 영화인들의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청렴·초심 유지가 영화제 덕목

문화축제, 규모 좇지 말고

테마·컨셉 갖춰 관객과 호흡을

“좋은 축제 만들었다”

부산 시민 자긍심·자신감 심어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독립성이 훼손됐을 거다. 관객들 수준을 신뢰하고 판단은 관객에게 맡겼다. 예상했던 대로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잠깐 소란스러운 걸 빼고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상영했다. 위원장이라는 위치는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시아, 전 세계 영화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비엔날레에서 문제가 됐던 ‘세월호월’ 역시 전시장에 걸렸어야 한다고 본다.”

이 위원장은 베이징 영화제가 900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문화 축제가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영화제 운영 등 효율성을 따져야하고, 관객과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독립성을 훼손하는 ‘검열 제도’가 있는 한 세계 영화인들의 호응을 얻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역 영화제들이 너무 규모만을 쫓는 것 같다. 부산의 경우 수요와 요구가 커서 규모가 따라간 것이지, 의도적으로 규모를 키운 게 아니다. 성장통도 오래 겪었다. 부산영화제를 모델로 삼는 건 바보같은 짓이다. 테마, 컨셉이 있는 영화제, 작지만 알차게 꾸러지는 영화제가 의미 있다.”

이 위원장은 지역 영상 인력 등을 키우는 데 영화제가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는 데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부산시가 영상 산업의 장미빛 미래만을 그리며 조급성을 보이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영상산업의 허브를 꿈꾸는 건 맞지만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 영화제 하나 성공했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제 막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체력 보강의 토대를 쌓은 셈이다.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니라고 본다. 학교가 너무 많이 생긴 것도 문제다.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을 갖추는 건 맞지만 오버하는 건 안된다. 인력 인플레가 걱정되기도 한다.”

현재 부산영화제는 국비 지원이 줄고 4년째 전체 예산이 동결돼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올해 예산은 120억원으로 시비와 국비가 각각 60억원과 15억원이며 나머지는 스폰서(30~35억원)와 티켓 판매금 등이다.

“정부가 지방 축제 예산을 지방이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산영화제는 단순히 지역 축제가 아니다. 이점을 강조하며 계속 지켜주고 있다. 영화제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보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스폰이 많이 늘었다. 그들에게 ‘의외의 선물’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영화제가 열리는 단 10일간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여를 못지 않은 특수를 누린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부산 시민들이 “좋은 축제를 만들었다는 자긍심, 자신감을 갖게 된 게 의미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국립 亞문화전당 상생 전략은?

### 광주지역 8개 문화기관·단체 내일 포럼 개최

광주지역 8개 문화기관 및 단체가 14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재단 거시기홀에서 내년 9월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주관하는 이날 ‘문화기관협의회 정책포럼’은 ‘아

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지역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이날 포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김성일 단장, 속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이선철 교수가 기조발표를 한다.

김 단장은 아시아문화전당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브리핑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차원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이 교수는 ‘창조도시를 위한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창조도시론에 입각한 문화전략과 지역차원의 문화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기관별 발표가 이어진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수도로서 거듭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670-7431. /김경진기자 kki@kwangju.co.kr

## ‘노벨상 특수’ 모디아노작 판매 급증

###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신원미상 여자’ 등

지난 9일 올해의 노벨문학상이 발표되고 수상자인 프랑스 소설가 파트리크 모디아노(69)에 대한 국내 독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대표작을 비롯한 소설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프랑스 현대문학거장으로 불리는 모디아노의 작품들은 오래 전부터 국내에 소개됐지만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그의 작품을 찾는 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교보문고에서는 수상 발표 후 10일 동안 모디아노의 소설이 1000부 가량 팔려나갔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도 노벨문학상 발표 후 하루 동안 그의 소설이 700부 가량 판매됐다.

에스24도 모디아노의 책 중 현재 판매되고 있는 9권의 도서가 노벨상 수상이 발표된 지난 9일 저녁 이후 12일(오전 9시) 까지 최고 106배 판매량이 늘었다. 프랑스의 가장 위 있는 문학상인 공쿠르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대표작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문학동네)는 640권이 팔려갈 정도로 신장세가 두드러진다. 여기에 ‘신원미상 여자’와 ‘우리 아빠는 엉뚱해’(별천지)도 크게 판매가 늘면서 수상 효과를 누리고 있다.

염현숙 문학동네 편집국장은 “노벨문학상 발표 후 주문이 쇄도해 3000부가 나갔다”고 밝혔다. 문학동네는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1만 5000부 등 주요 작품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 /박성천기자 skypark@

## 흥어 잡는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 김해등씨 동화 ‘대대로 흥어 하나씨야’ 펴내

서울과 강진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해등 작가가 ‘대대로 흥어 하나씨야’(웅진 주니어)를 펴냈다.

‘전교 네명 머시기가 간다’가 초등 4학년 국어활동 교과서에 수록된 바 있는 김 작가는 이번에 ‘대대로 흥어 하나씨야’를 출간하며 다시 한 번 작품 번신을 도모했다.

책은 흑산도에서 대대로 흥어잡이를 해왔던 윗대 할아버지들 이야기다. 제목에 담긴 ‘하나씨’라는 단어는 전라도 지방에서 부르는 할아버지를 뜻하는 방언으로, 동화는 작은 어촌에서 흥어를 잡으며 사는 흥우네 집 이야기를 다룬다.

흥우는 학교에서 흥어잡이를 하는 부모님 직업 소개를 하다가 친구에게 놀림을 받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잡은 큰 흥어가 최고 값에 낙찰되면서 자신감을 회복한다. 이 과정에서 흥우는 고단한 어부생활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 힘든 일을 마다않았던 부모님과 윗대



할아버지들의 위대함을 깨닫는다.

한편 어부였던 아버지 덕분에 바다 이야기를 생생하게 썼다는 김 작가는 웅진주니어 문학상, 대산대학 문학상, 정재봉 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 샌님 정약전과 바다 탐험대’ 시리즈, ‘흑산도 소년 장군 강바우’ 같은 바다 이야기를 써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가입문의 1855-0000



#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헬로tv UHD 방송이란?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지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지에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1855-1008)

[www.cjhellovision.com](http://www.cjhellovision.com)